

광주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 대상 공모...내달초 선정 예정

29일까지 접수, 건축물·투명방음벽 관리 기관·소유주 등 대상
3천만원 투입,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부상·폐사 등 방지

광주시는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해 부상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시는 조류충돌 저감 추가 지원을 위해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조류충돌 피해 민원이 많거나 지역의 대

표성 및 홍보 효과가 큰 곳을 8월 초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은 면적 1천200㎡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방지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cm, 좌우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

하려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적용한 '5×10규격' 패턴 무늬 스티커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건축물과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와 점유자 등이며, 접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9일까지 시 기후

환경정책과로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62-613-4143)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예방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중인 조류충돌 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 등의 증가로 전국에서 하루 2만마리 정도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광역시 최초로 조류충돌 저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조류충돌저감 스티커 설치 등을 강력 권고하고, 환경부 공모와 연계해 보건환경연구원(공공건축물, 465㎡)과 광산구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투명

방음벽, 1천㎡) 등 2곳에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를 부착했다.

올해는 북구 첨단대우 이안아파트(투명방음벽, 286㎡)가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최소화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 /이유빈 기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실증센터 전라남도 여수시에 구축 계획 발표

전남도는 여수에 탄소중립을 선도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등이 위치한 대규모 광양만권이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을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이산화탄소 화학적 전환 통합 기술 실증설비와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등을 갖춘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친환경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실증 장비 교육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양

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은 도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정 개선, 탄소 저감형 기술개발, 탄소중립형 신산업 전환 등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대부분 기초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 원천기술에 대한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증 기반과 지원이 부족해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내 기업들도 대규모 연구비 소요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환기술 개발, 기술상용화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플랫폼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과 화학·철강 등 대규모 탄소배출 산업이 밀집돼, 실증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용운 기자



'땅끝 바다의 낭만'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개장
해남군 송호해수욕장이 지난 8일 개장했다. 땅끝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송이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 적합하다. 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피서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해남군 제공